

'현우경' 이야기 (40)

물고기가 된 왕

“나의 살을 먹고 모두 행복해지시오”

옛날 잠부드비파에 설두라건녕이라는 큰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있었다. 그는 팔만사천 크기의 땅과 육만 산천과 팔십억 촌락과 이만명의 부인과 수없이 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있었다. 왕은 이렇게 속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졌는데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일체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가엾이 여겼다. 그리고 지극히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었다.

어느날이었다. 왕은 정원을 거닐며 궁녀들과 한가로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점성사가 흰래벌떡 뛰어왔다.

“화성이 나타날 조짐이 보입니다. 만일 화성이 나타난다면 이십년 동안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런 변이 있으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화성이야...만일 그런 재앙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백성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고 또 이 나라도 사라질 것이다”

왕은 신하들을 모아 의논을 했다. 그때 한 신하가 이런 제안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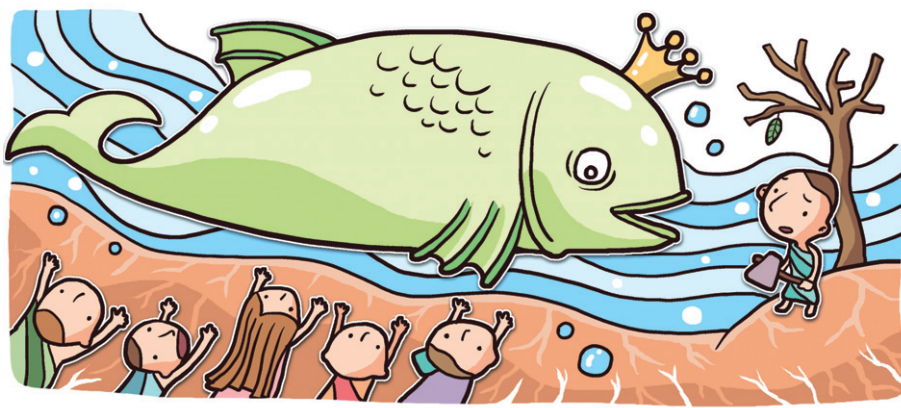
“여러 지역에 영을 내려 인구를 조사하고 또 창고에 있는 현재 곡식을 계산해 그 수량을 파악하고, 이십년 동안에 한 사람에게 돌아갈 몫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려 곡식 계산과 수량 파악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모두 계산하니 백성들의 하루 몫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드디어 화성이 나타나고야 말았다.

그리고 점성사의 말대로 가뭄이 들었고 농사는 흉흉해졌다. 농사를 망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갔다. 늘 백성들을 걱정하던 왕은 어떻게 백성들을 구제할 것인가를 고민 또 고민했다.

“나의 복덕이 부족한 탓인가?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저렇게 굶어죽어가는 백성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단 말인가?”

동산에 오른 왕은 먼 하늘을 쳐다본다. 그리고 문득 머릿속에 어떤 생각 하나가 자리잡게 된다. 그는 일어나서 사방을 향해



삽화·강병호

예배하고 이내 서원을 세운다.

“나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을 살릴 의무가 있다. 이 몸을 버리고 일체 백성을 구제하리라”

이렇게 다짐한 왕은 나무 위로 올라가 땅에 떨어지고야 만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아래 강에는 땅을 다 덮고도 남을 엄청난 물고기 한 마리가 나타났다. 왕은 어마어마한 물고기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어느날 목공 다섯 사람이 나무를 베기 위해 강가로 갔다. 그러다가 강에서 꿈틀거리는 큰 물체를 발견하게 된다. 이상하게 여긴 한 목공이 다가가 이를 살핀다. 그것은 세상에서 여지껏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물고기였다.

“이보시오. 목공 양반들. 만일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하거든 내 살을 먼저 먹시오. 그리고 배가 부르면 가지고 가 사람들

에게 나눠주시오. 지금 내 살을 배불리 먹으면, 나는 뒤에 부처가 되어 범으로써 세상을 구제할 것이요. 당신들은 온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 주시오. 만일 먹을 것이 필요하거든 모두 와서 내 살을 가져가라”

굶주림에 지쳤던 목공들은 기뻐하며 각기 도끼로 물고기의 살을 쪼아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물고기의 살을 가지고 돌아가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말하는 물고기가 있대네”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나?”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게나. 물고기가 자기 살을 이렇게 우리에게 내어 줬대네”

사람들은 아귀처럼 모여들어 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모두 강가로 달려갔다.

“저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고”

물고기는 굶주린 백성들을 보니 눈물이 났다. 사람들은 물고기의 눈물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모여들어 물고기의 살을 떼어가기 시작했다.

한쪽 살이 없어지면, 곧 스스로 몸을 뒤척여 다른 쪽 살을 먹고 그 살이 없어지

면 먼저 먹은 곳의 살이 돌아오고, 살이 돌아오면 또 몸을 뒤척여 그것을 먹었다. 피가 나고 온몸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물고기는 꾀없이 버텼다.

“그래 나의 살을 먹고 모두 행복해지시오. 나의 이런 고통 따위는 아무러면 어떠하오. 나는 당신들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소”

점차 백성들도 기력을 회복했고 굶주리는 백성은 사라져갔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빨리 흘러갔다. 그렇게 가뭄의 저주가 내렸던 20년도 지나갔다.

물고기는 그 긴 시간 동안 백성들에게 살을 나눠주고 또 그 살이 자라면 또 떼어주기를 반복했다. 백성들은 그 살을 먹고 살아났고 모두 자비심을 내어 천상에 태어나게 됐다.

물고기는 부처님으로 태어났고 그 최초의 살을 먹은 목공 다섯 명은 비구가 되었다. 또 이후 그 살을 먹은 여러 사람들은 팔만 하늘 사람과 여러 제자들로서 구원을 받게 됐다.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42**  
- 경전 한 구절로 복습을 구한 도둑 -  
구성-김흥인

옛날에 어떤 도둑이 사찰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 그러나 물건은 훔치지 못하고... 가져갈게 없네...!

도둑이 만취하자 신비롭게 꾸며놓은 궁궐 뒷뜰로 도둑을 옮겼다. 저리로! 네!

시간이 지나 도둑이 깨어났다. 저는 선녀구요! 선생님은 훌륭한 보물을 갖고 계신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우연히 비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선녀들은 거의 눈을 깜박이지 않는대려! 그래?

다음날 도둑은 궁궐에 들어가 임금이 아끼는 보물을 훔쳤다. 보물을 도둑맞았다!

임금은 보물을 되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잡히기만 해봐라!

어떻게 절에서 들은 말이 생각났다. 선녀... 눈을 깜박이지 않는다고... 대체 그 보물은 어디에 있나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도둑은 함정임을 알고 황급히 도주했다. 가짜대! 어떻게 알았지? 후다닥 후다닥

그리고 마침내 수사관에 걸렸다. 틀림 없어? 여깁니다!

수사관은 도둑에게 접근하여 술을 먹였다. 인상 참 좋으시네! 한잔 받아요!

휴~ 흠져들은 그 말 덕분에 살았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도둑은 보물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놓았다. 보물이 돌아왔다! 오! 다행이로다!

도둑은 지난날을 반성하고 출가하여 수행길에 도를 얻었다. 착하게 살자!

끝

**NAVER 영일상사**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佛器)  
아주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우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중량 525g, 유효기간 10년

※ 본 제품은 10년간 사용해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농협 312-0029-1189-81(예금주 : 고태용)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영일상사**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목걸이**

A 타입 영주곡기 25mm ₩ 65,000  
B 타입 영주곡기 16mm ₩ 55,000

심종신앙의 특허출원

★마이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B (1set) ₩100,000**  
택배비 무료

주문전화

구미 미륵사(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도암(진각) 010-6657-5522  
대구 포교사(법일) 010-9591-8599

☆유·무선  
경용 입금계좌(예금주 :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 꿈이 이루어 집니다! ★  
보현사신협과 함께하면  
- 사찰대출 전문 불교은행 -

우수조합원초청 보현사신협  
**대만성지순례 “그곳에 가고 싶다 Ⅲ”**  
2011. 10. 25 ~ 2011. 10. 29 (4박 5일)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 상담 전우 서일영 010-3527-1037  
상담 차장 정종철 010-2543-1037